

# 해체구성, 그리고 미국 문학 비평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하나의 고찰\*

—De Man의 이론화와 Knapp과 Michaels의 반이론의 논리—

張 敬 烈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 I. 문제의 제기: 해체구성의 위기

아마도 1988년 2월 15일자 『뉴스위크』지에 인용된 “해체구성”(deconstruction)은 12년 동안 지속된 천년 제국(Reich)으로 판명되었다”<sup>1)</sup>라는 어느 대학 교수의 발언은 오늘날 미국 문학 비평계의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는 데 하나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체구성의 종말을 선언하는 위의 인용에 <제국>이라는 뜻의 <Reich>라는 독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위의 인용은 폴 드 만(Paul de Man)이 20대 청년 시절 벨지움에 살면서 신문에 기고한 일련의 글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오고간 수많은 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sup>2)</sup>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초엽 벨지움이 독일의 <제삼제국>(Das Dritte Reich)에 의해 지배를 받는 동안, 드 만은 친나치적 신문에 180여편의 서평과 음악평을 기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십세기 후반 미국의 문학 비평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가 중 하나인 드 만이 반유대주의자였다니!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이미 작고한 드 만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재평가 작업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물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같이 드 만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3)</sup>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고 비난과 비판을 서슴치 않게 된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해체구성의 종말을 선언하는 위의 인용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 충격적

\* 이 논문은 1989년 학술연구조정비(자유공모과제) 지급에 의해 쓰여진 것임.

- 1) David Lehman, “Deconstructing de Man’s Life: An Academic Idol Falls into Disgrace,” *Newsweek* 15 February 1988: 58.
- 2) 드 만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83년 사망하였으며, 그가 친나치 계열의 신문에 기고한 때는 1940년에서 1942년 사이이다. 그의 반유대주의적 글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글들이 1987년 여름 벨지움의 한 대학원생에 의해 밝혀지고부터이다. 그 해 12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관련 기사가 나가고 나서 본격적인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 3) Jacques Derrida, “Like the Sound of the Sea Deep within a Shell: Paul de Man’s War,” *Critical Inquiry* 14.3 (Spring 1988) 590-652 참조.

사실의 드러남으로 인해 드 만의 지적(知的) 작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미국의 비평계에 그가 미친 영향 자체를 무시해 버리려는 태도까지도 일별된다.

만일 드 만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해체구성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여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단순히 드 만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제까지의 인간적, 도덕적 신뢰감이 깨지고 말았다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닐는지? 이를테면,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나치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철학 체계를 전체를 부정하거나,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무솔리니(Mussolini)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그의 시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감정적 또는 전략적 대응은 아닐는지? 물론 이들이 범한 과오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한때의 과오를 들어 어느 한 인간의 지적 작업 전체를 부정하기에 앞서 그의 작업에 대한 냉정한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즉, 드 만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내리는 “해체구성은 12년 동안 지속된 천년 제국으로 판명되었다”라는 투의 단정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가 만일 “해체구성이 ‘서구 사상의 원리에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물질이란 개념에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sup>4)</sup>라는 바버라 존슨(Barbara Johnson)의 지적에 유념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같은 단정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사실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국 비평계에 행사하고 있는 해체구성의 논리에 대해 별다른 대책없이 방어적 자세를 취해 왔던 서구의 형이상학 전통에 집착하는 본질론자(essentialist)들에게 드 만의 과오가 시의적절한 반격의 씨투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드 만에 대한 비판 전체를 단순한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비록 “해체구성이 ‘서구 사상의 원리에 적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서구의 형이상학 전통에 대한 해체구성의 문제 제기가 전략적 또는 심하게 말하자면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서구의 형이상학이 지니는 <문제적 측면>의 반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드 만의 과오를 단순히 일과성의 사건으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해체구성이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서구 형이상학이 지니는 <문제적 측면>을 드 만 자신이 한때나마 고수했었다면,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단 한번도 공개적인 자기 비판 또는 반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이론의 성실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Barbara Johnson, “The Surprise of Otherness: A Note on the Wartime Writings of Paul de Man,” *Literary Theory Today*, ed. Peter Collier & Helga Geyer-Ryan (Ithaca: Cornell UP, 1990) 18.

드 만이 자신의 비평적 논의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전략적 방법에 호소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위의 물음에 대해 우리가 그 어떤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 만의 과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듯이 그의 이론이 미국 비평계에 행사한 영향력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의 이론에 대한 검토는 미국 비평계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되거나, 그의 이론에 관심을 갖는 또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놓인다. 그러나, 1983년 마이어 에이브럼즈(Meyer H. Abrams)가 뉴 맥시코 대학교에서의 초청 강연 후 질의에 답하면서 “해체구성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세력을 강화하다가 후에는 서서히 약화될 것이다”<sup>5)</sup>라고 예측했듯이, 언젠가 해체구성 역시 과거사가 될지도 모른다면, 해체구성 이후 미국 비평계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일도 미국 비평계의 현재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드 만의 이론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스티븐 냅(Steven Knapp)과 월터 벤 마이클즈(Walter Benn Michaels)가 1982년 *Critical Inquiry*의 여름호에 발표한 논문, 「이론에 반대하여」(“Against Theory”)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그밖의 여러 논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논문을 각별히 문제 삼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논의 자체가 새롭고 신선하여 미국 비평계의 새로운 움직임에 예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의가 새롭고 신선하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해체구성에 대한 반(反)해체구성론자들의 비판이 에이브럼즈나 머리 크리거(Murray Krieger)의 예<sup>6)</sup>가 보여 주듯이 전통적인 인문학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이들에게서는 그 어떤 보수적 편향을 읽을 수 없다는 뜻에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이들은 문학 이론 및 비평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미국의 비평계를 향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유도하고 있다. 미첼(W. J. T. Mitchell)의 지적대로, “「이론에 반대하여」의 본질적 가치는 . . . [문학 비평가들이나 이론가들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일종의 촉매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sup>7)</sup>는 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목이 요청된다.

- 
- 5) M[eyer] H. Abrams, “A Colloquy on Recent Critical Theories,” *Doing Things with Texts: Essays in Criticism and Critical Theory*, ed. Michael Fischer (New York: Norton & Co, 1989) 333.
- 6) 해체구성에 대한 전자의 비판과 관련하여 *Doing Things with Texts*에 실린 “The Deconstructive Angel”이라든가, “Behaviorism and Deconstruction,” “Construing and Deconstructing” 등의 논문을 참조할 것. 후자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Murray Krieger, *Arts on the Level: The Fall of the Elite Object*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81)의 “Literary Criticism: A Primary or a Secondary Art?”를 참조할 것.
- 7) W. J. T. Mitchell, “Introduction: Pragmatic Theory,” *Against Theory: Literary Studies and the New Pragmatism*, ed. W. J. T. Mitchell (Chicago: U of Chicago P, 1985) 3.

## Ⅱ. 폴 드 만: 신비평의 한계와 해체구성의 논리

드 만은 「미국 신비평에서의 형식과 의도」(“Form and Intent in the American New Criticism”)라는 글을 통해, 유럽의 비평이 “문학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미국의 비평은 문학에 대한 “문체론적” 또는 “형식주의적” 접근으로 규정될 수 있던 시기가 있었음에 주목한다.<sup>8)</sup> 한편, 그에 의하면, 전자의 장점인 “역사적 지식”과 후자의 장점인 “문학 형식에 대한 진정한 감식력”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그 동안 유럽의 비평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반면, 미국의 비평계는 “신비평의 압도적 영향 아래 처음부터 그 비평 경향을 지배해 왔던 반(反)역사주의라는 편견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BI 20). 즉, 형식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미국의 비평은 고립의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적 형식주의가 나름대로 만개(滿開)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립을 필요로 했었다”(BI 21)고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드 만의 견해이다.

미국 비평계의 형식주의적 경향에 대한 드 만의 비판은 우선 “의도”를 비평의 영역에서 제거함으로써 비평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의도”를 배제함으로써, 미국의 비평가들은 “자족적 실체”라는 지위를 문학 작품에 부여하고, 나아가서 그 문학 작품을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하나의 “감각적 대상”(sensory object)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들을 다르게 되면 자족적 실체인 문학 작품이 고유하게 지나는 완결된, 따라서 일관된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비평가의 의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드 만이 주장하듯이, 문학 작품이란 의도가 배제된 채 존재하는 감각적 대상, 말하자면 한 그루의 나무나 한 덩어리의 바위와 같은 단순한 자연물(natural object)은 아니다(BI 24). 문학 작품이란 누군가가 자신의 의를도 개입하여 <구조화>한 그 무엇인 것이다. 만일 문학 작품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이유는 서로 상충되는 의미들을 조직화하여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려 했던 누군가의 의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설의 경우 대상의 이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설자의 의도이듯이, 창작의 경우 작품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의 원리를 부인하고 작품—또는 작품을 구성하는 언어—의 “자율성”을 내세우는 경우, 비평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아이러니> 또는 <파라독스>라는 개념 아래 묶여지는 일군의 상충되는 의미들뿐이다. 결국 신비평은 “시적 애매모호성에 대한 분석, 즉 어처구

8) Paul de Man,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rev. e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3) 20.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BI”로 밝히기로 함.

니없게도 비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통일성의 결여에 대한 고찰”(BI 28)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 님의 주장이다. 요컨대, 그에 의하면, 비록 미국의 신비평이 “일관성의 원리가 비평 과정을 선도하는 동기임을 재확인”시켜 주긴 했지만, “의도의 원리를 그릇된 것으로 거부함”으로써 “문학 언어의 특징적 구조에 대한 발견”과 “일관성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BI 32). 그리하여 “신비평가들의 이론적 가설과 그들이 행한 실제 비평 사이의 묘한 불일치”(BI 28)로 인해 신비평은 “일종의 마비 상태”(BI 32)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비평에 대한 님의 비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비평가들이 문학 작품과 함께 문학의 언어를 일종의 단순한 감각적 지각 대상인 양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즉, “의미를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외양의 총체와 동일시”하는 논리는 “문학의 언어는 존재론적으로 말해 자연적 사물과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의 지적(BI 24)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신비평이라는 비평적 사유의 틀이 형성되는 데에는 언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연물과 같다는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상 신비평가들이 지니고 있는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의 이면에는, 언어란 일관성있게, 따라서 객관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가정—즉, 언어란 의미론적 일관성을 지니는 기호 체계라는 가정—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신비평은 언어의 모순성과 비일관성을 인정하는 애매모호성이나 아이러니 등을 중요한 의미론적 분석 장치로 삼고 있다. 무슨 이유로 신비평가들이, 이와 같은 분석 장치를 비평의 주요한 수단으로 고집하면서도, 언어란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는 기호 체계라는 가정을 결코 문제삼지 않았던 것일까? 무엇보다도 객관적 또는 과학적 관찰이란 관찰 대상을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가변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경우, 관찰자는 적어도 관찰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불변의 상수(常數)를 상정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한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 중 무언가를 불변의 상수로 가정하지 않는다면 비평의 객관화 또는 과학화를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 비평의 과학화를 꿈꾸었던 신비평가들에게 우연히 언어가 그러한 불변의 상수로 상정되었던 것이라.

그러나, 님이 주장하고 있듯이, “인식 행위는 나름의 역사를 지니는 시간적 행위”라면, 일련의 말을 이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바의 것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작업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어느 시점에서든 결코 완결지을 수 없거니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이해해야 할 것 사이에 존재하는 위상차는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님의 표현에 의하면, “기호와 의미 사이의 불일치”(BI 12)로 인해 “언어를 해석하는 일은 일종의 시지포스적 과제,

말하자면 끝도 없고 진전도 있을 수 없는 과제”(BI 11)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모든 종류의 언어, 심지어 “시의 언어”에 대해서조차 “기호와 의미가 일치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BI 12).

이상과 같은 드 만의 논리는 특히 “상징”과 “알레고리”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이해를 비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상징은 “언어의 표상 기능과 의미 기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 표현,” 말하자면 “의양(기호)과 생각(의미)의 일치”를 보장하는 기호로 정의된다(BI 189, 12). 반면 알레고리는 “어떤 특정한 의미만을 지시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의미가 해독되면 자체의 잠재적 암시성이 소진되고 마는 기호”로 규정된다(BI 188). 이 같은 개념 정의에 의거하여 대체로 사람들은 상징이 알레고리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을 드 만은 “아름다운 영혼”(BI 13)의 현현(顯現)을 꿈꾸는 낭만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낭만주의적 미망”(BI 12)이라고 규정한다. 즉, 상징이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초월적 합일을 헛되어 추구하던 낭만주의자들이 꿈꾸었던 일종의 “신화”(BI 13)라는 것이다. 드 만은 「시간성의 수사학」(“The Rhetoric of Temporality”)이라는 논문에서 이와 같은 신화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낭만주의자들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잘못 설정해 놓은 초월적 변증법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진정한 시간적 운명”(BI 206)을 직시할 것을 역설한다. 즉, 우리의 인식 세계는 결코 초월적인 상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의미를 지워 버리고 새로운 의미라는 환상을 덧붙이는 알레고리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이라는 수사적 장치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언어 행위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간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드 만의 논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언어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녀 왔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호와 의미가 초월적 합일을 이루는 상징적 언어의 세계, 즉 <현존>(présence)의 언어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드 만은 우리에게 “일상의 언어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에도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불일치를 밝히”거나, “[문학에 의해] 주장되는 자체의 언어가 갖고 있는 고상한 지위”라는 신화를 깨뜨릴 것을 촉구한다(BI 12, 14). 아마도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는 <해체구성>(déconstruction)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모든 언어가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불일치 속에 존재하는 <흔적>(trace)에 불과하다면, 또한 그 언어 세계에 접근하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언어일 뿐이라면, 그 세계가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어떤 초월적 의미를 개진하고 있는가 따위의 물음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그 언어 뒤에 숨겨진 허위와 모순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해체구성의 구체적 예의 하나로 우리는 윌리엄 바틀러 예이츠(W. B. Yeats)의 시, 「어린

학생들 가운데서] (“Among School Children”)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저 유명한 수사 의문문, “어찌 우리가 춤추는 사람과 춤을 나눌 수 있겠는가?”에 대한 드 만의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 밤나무여!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꽃피우는 나무여,  
 잎이 그대인가, 꽃이 그대인가, 아니면 줄기가 그대인가?  
 오 음악에 맞추어 흔들리는 몸이여, 오 눈부신 빛이여,  
 어찌 우리가 춤추는 사람과 춤을 나눌 수 있겠는가?<sup>9)</sup>

일반적으로 이 시의 마지막 물음은 수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형식과 체험 사이의 통일성” 또는 “존재의 유기적 통일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일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드 만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만일 위의 물음을 “어찌 우리가 춤추는 사람과 춤을 나눌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다오”<sup>10)</sup>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즉, 위의 물음을 “기호와 지시 대상이 너무도 정교하게 가상적인 ‘현존’ 속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양자를 분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AR 11)의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물론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일반적인 해석과 관계없이, 또는 일반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반적 해석에 반(反)하여 가능하다. 심지어 예이츠의 시적 의도가 전자의 해석 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후자의 해석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에 대해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시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관계없이, 또는 예이츠의 시어가 아무리 기호와 의미 사이의 신비롭고도 초월적인 합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탈신비화”, 즉 “해체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라는 시의 언어가 표면상 내세우는 의미—만일 그런 의미가 있다면—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언어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텍스트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깨뜨리고 전혀 엉뚱한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을 우리는 여전히 포착하고 또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이츠의 시어에도 “일상의 언어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 . .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체구성에 대한 드 만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주목할 만하다.

9) O chestnut-tree, great rooted blossomer, /Are you the leaf, the blossom or the bole? / O body swayed to music, O brightening glance, /How can we know the dancer from the dance? [“Among School Children,” VIII]

10) Paul de Man,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Yale UP, 1979) 12.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AR”로 밝히기로 함.

해체구성이란 텍스트에 첨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텍스트를 이루고 있던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자체의 수사적 유형(mode)이 지닌 권위를 내세움과 동시에 부정한다. 그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미 행한 것처럼, 작가가 애초에 글을 쓰기 위해서 엄격해야 했던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엄격한 독자가 되려고 애를 쓸 따름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시적인 글은 해체구성의 양식 중 가장 진보되고 세련된 것이다. 물론 시적인 글은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면에서 비평적이거나 논증적인 글과는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이라고 할 수 없다.

[AR 17]

이른바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해체구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드 만의 모든 시도에서 우리는 그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에 대한 논의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함”과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함”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드 만의 비평적 언어도 “일상의 언어”나 “문학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사적” 상황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 드 만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시적인 글은 해체구성의 양식 중 가장 진보되고 세련된 것”이고,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면에서 비평적이거나 논증적인 글과는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드 만의 비평과 논증도 “수사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랭크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가 지적하고 있듯이, 드 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투의, 특권적 위치에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11)</sup>는 데 있다. 드 만의 글을 그 모든 비평가나 철학자의 글만큼 진지하게 해체 구성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울러, 드 만의 논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바로 작가의 의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의도의 원리를 그릇된 것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신비평이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드 만은 여전히 또 다른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즉, 예이츠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드 만은 기호와 의미 사이의 불일치를 가정함으로써, 작품 이해에 해설자의 의도만 임의적으로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할 뿐, 작가의 의도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무한하게 가변적인 언어의 집합체로 여김으로써, 아울러 그 가변적인 언어가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드러내는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드 만은 역설적으로 해체구성을 다름아닌 “새로운 신비평”(the *new new criticism*)<sup>12)</sup>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호와 의미 사이의 불일치를 인정하는 경우 해설자의 의도 역시 궁극적으로 부정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작가와 해설자를 떠나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는 해체구성론의 언어는 신비평과 마찬가지로 해체구성을 새로운 “마비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다. 요컨대, 드 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의 본질에 대한 드만의 “통찰력”(insight)에도 불구하고 “맹점”(blindness)은 결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11) Frank Lentricchia, *After the New Criticism* (Chicago: U of Chicago P, 1980) 293.

12) Murray Krieger, “Introduction: A Scorecard for the Critics,” *Directions for Criticism: Structuralism and Its Alternatives*, ed. Murray Krieger & L. S. Dembo (Madison: U of Wisconsin P, 1977) 8.



### Ⅲ. 넵과 마이클즈: 이론화의 한계와 반이론의 논리

의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드 만 자신의 논의에서 확인되는 이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우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넵과 마이클즈의 「이론에 반대하여」라는 논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 논문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든 또는 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든 모든 이론은 “하나의 단일한 오류”를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론이 아닌 모든 이론 또는 이론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sup>13)</sup> 이들은 몇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 사이의 관계”(“AT” 724)라는 쟁점에 주목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 두 개념이 “실제로는 분리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이 임의로 이들을 “분리함으로써 이론적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AT” 724).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넵과 마이클즈는 이어지는 논의들 “의도”에 관한 몇 가지 대표적 이론적 논의들이 지니는 오류와 한계를 파헤치는 데 바치게 된다.

이론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공격은 성격이 다른 두 진영을 향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 한 진영이 허쉬(E. D. Hirsch, Jr.)나 줄(P. D. Juhl)로 대표되는 이른바 “긍정적 이론가”(positive theorist)들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드 만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이론가”(negative theorist)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긍정적 이론가들은 언어란 “본질적으로 [다중적 의미를 지닌] 애매모호한 것”(“AT” 735)이며, 따라서 의도를 확인함으로써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이론가들은 언어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AT” 735)이기 때문에 의미란 다만 “의도”를 상정함으로써 임의적으로 “귀속”(impute)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넵과 마이클즈는 이들 양자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언어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가 행한 하나의 구체적] 발화 행위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면, 후자의 경우 “[누군가가 행한 구체적] 발화 행위처럼 보이는 것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를 언어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AT” 736). 즉, “언어란 항상 의도적일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행한 구체적] 발화 행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도가 언어에 첨가되거나 언어에서 삭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이론가는 의도를 첨가하고자 하고, 부정적 이론가는 의도를 삭제하고자 한

13) Steven Knapp & Walter Benn Michaels, “Against Theory,” *Critical Inquiry* 8.4 (1982): 723. 이 논문은 발표 후 비평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무수한 비판적 반응이 *Critical Inquiry*에 게재된 바 있다. 후에 *Critical Inquiry*의 편집장 W. J. T. Mitchell은 이를 묶어 *Against Theory: Literary Studies and the New Pragmatism* (Chicago: U of Chicago P, 1985)이라는 책으로 간행. 이 논문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AT”로 밝히기로 함.

다는 것이다(“AT” 736).

사실 넵과 마이클즈가 긍정적 이론가 중 하나로 지명하고 있는 허쉬가 제기한 의도론이 지나는 문제점은 이미 수많은 논쟁을 통해 지적되고 비판된 바 있다. 일찌기 허쉬는 「객관적 해석」(“Objective Interpretation”)이라는 논문을 *PMLA*(1960년 9월호)를 통해 작가의 의도란 비평의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단지 장애가 될 뿐이라는 신비평가들의 주장에 도전하여, 작품의 의미에 객관성을 보장해 주는 단 하나의 요소는 다름아닌 작가의 의도임을 주장하였다.<sup>14)</sup> 문제는 작가의 의도란 과연 접근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에 놓인다. 무엇보다도 허쉬는 후설(Edmund Husserl)의 “지향”(Intentionalität) 개념에 의존하여 작가의 의도에 접근 가능성을 밝히고, 이어서 나름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의 논리는 후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5)</sup> 결국, 허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란 과연 접근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작가의 의도라는 미명 아래 비평가의 자의적(恣意的) 의미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데이비드 쿠즌즈 호이(David Couzens Hoy)의 지적대로, “허쉬의 새로운 의도주의로 인해 . . . 다른 사람의 독해를 배격한 채,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독해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투의 믿음을 해설자는 점점 더 완고하게 지키려고 할 수 있다.”<sup>16)</sup> 허쉬의 의도론에 대한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미확정 상태에서 확정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첨가되는 유일한 것은 [작가의] 의도에 <관한> 정보일 따름이지 의도 자체는 아닌 것이다”(“AT” 726)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넵과 마이클즈가 “부정적 이론가”로 지목하고 있는 드 만에 대한 이들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들이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드 만의 논문 「도난당한 리본」(The Purloined Ribbon)을 일별해 보기로 하자. 이 논문은 1977년 *Glyph*의 창간호에 발표된 것으로, 이를 통해 드 만은 루소가 『참회록』에서 밝히고 있는 리본 도난 사건을 문제삼고 있다. 루소는 어떤 귀족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동안 자신이 리본을 훔치고서 나중에 그 일을 하녀인 마리옹이 한 것이라고 <발설>하게 되는데, 『참회록』을 통해 루소는 이에 대한 변명조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도중 드 만은 루소가 “우연히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무언가의 소음을 입 밖으로 내놓은 것일 뿐, 결코 그 어떤 말도 하고 있었던 것이 아”<sup>17)</sup>닐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즉, 드 만에 의하면, “루소가 마리옹을 원하기 때문에, 그

14) E[ric] D[onald] Hirsch, Jr., “Objective Interpretation,”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P, 1967) 209-44 참조.

15) 후설의 “지향” 개념에 대한 허쉬의 이해가 지나는 오류와 한계에 관해서는 장경렬, 「작가의 의도와 비평적 객관성의 문제」, 『철학과 현실』(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0년 가을호) 259-78 참조.

16) David Couzens Hoy, *The Critical Circle: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ical Hermeneutic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8) 34-35.

17) Paul de Man, “The Purloined Ribbon,” *Glyph: Johns Hopkins Textual Studies 1*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7) 39. 이 논문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PR”로 밝히기로 함.

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하여 마치 엉뚱한 말이 잘못 입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발설한”(PR 36)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그 어떤 이름이나 단어도, 또는 그 어떤 소리나 소음도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지닐 수 있으며, 마리옹이 이야기 속에 끼어들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PR 36)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드 만에 의하면, “‘마리옹’이라는 소리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진정 그 어떤 그럴듯한 동기없이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놓았다고 할 때에만, 루소가 행한 행위의 총체적인 우발성이 드러나면서 가장 효과적인 변명”이 되기 때문이다(PR 37). 요컨대, 주어진 〈언어 표현〉에 의미 부여를 유보할 경우, 그 언어는 가장 〈언어적인 것〉이 된다는 논리이다.

드 만의 논의에서 우리는, 뱀과 마이클즈가 지적하고 있듯이, “언어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소리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소리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라는 논리, 말하자면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임의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유추해 낼 수 있다 (“AT” 734). 뱀과 마이클즈는 드 만이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기의”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순수 기표”(pure signifier)로서의 “소리”를 상징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이에 대한 뱀과 마이클즈의 비판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물론 소리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다. 아울러 소리가 언어 속에서 기능을 할 때 기표가 된다는 주장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소리 자체가 기표라는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다. 소리는 다만 의미를 획득할 때에만 기표가 되며, 의미를 잃을 때에는 더 이상 기표일 수가 없다. 드 만의 오류는 모든 의미가 배제된 상태에서도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여전히 기표라고 생각한 데 있다. 사실을 따져보면 의미없는 소음인 “마리옹”은 다만 “마리옹”이라는 기표와 〈맑은 것〉일 뿐이다. 마치 우발적으로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발설하는 행위가 마리옹의 이름을 대는 발화 행위와 〈맑은 것〉일 뿐이듯이, 드 만 역시 우발적으로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발설하는 행위가 발화 행위(speech act)가 아니라는 점(사실 이 점이 논의의 핵심이다)은 깨닫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언어(language) 또한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AT” 734-35]

한 마디로 말해, 의미가 고려되지 않은 소리는 언어 표현이 될 수 없으며, 언어란 의미를 부여하려는 행위자의 의도의 개입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학 작품에서 행위자, 즉 창작자의 의도를 배제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게 되면 드 만이 암시하는 “순수 기표”란 단순한 이론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루소에 대한 드 만의 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루소가 “마리옹”이 아닌 당시 상황과 결코 연루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이름 또는 조리에 닿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소음”을 발설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루소가 발설한 이른바 소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인가? 최악의 경우, 의미를 부여하기는커녕 루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드 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리옹”은 루소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무의미한 소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리옹”이라는 “소리”가 루소를 포함하여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나아가서 『참회록』의 독자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소리”가 아닌 한, 말하자면 잠재적으로나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소음”인 한, 이는 여전히 언어 표현이나 발화 행위로 이해(또는 오해)될 수 있다. 즉, “그 어떤 이름이나 단어도, 또는 그 어떤 소리나 소음도 [“마리옹”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드 만의 주장과 달리, 마찬가지로 효과를 지닐 수 없는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요컨대, “마리옹”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발화자 쪽이 아니더라도 청취자 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없는 “소리”인 동시에 앞으로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의미 부여가 불가능한 “소리”도 얼마든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마리옹”과 같은 특정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언어란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를 드 만이 유도하려 했다면, 이는 뱀과 마이클즈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분명히 “오류”이다.

그러나 드 만에 대한 뱀과 마이클즈의 비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비판 역시 일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리옹”의 예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든 의미부여가 가능한 “소리”가 있을 수 있는 한, “소리 자체가 기표라는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뱀과 마이클즈의 비판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마리옹”은 루소 쪽에서 보면 단순한 “소리”일지 모르나 상대 쪽에서 보면 여전히 의미있는 “기표”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드 만의 오류는 모든 의미가 배제된 상태에서도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여전히 기표라고 생각한 데 있다”라는 비판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잠재적으로나마 의미 부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의미가 배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표”로 취급될 수도 있는 “소리,” 즉 발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발화”도 존재한다. 마치 “기표”로 취급될 수 없는 “발화,” 즉 단순한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발화 행위”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존재하듯이. 바로 이같은 예를 우리는 뱀과 마이클즈가 *Critical Inquiry*의 1987년 가을호에 발표한 「이론에 반대하여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차가 막 지나가려 하는 걸널목 앞에서 “십시다”라는 말을 잘못하여] “갑시다”라고 말하는 대신, [한술 더 떠서] 택시의 승객이 운전자에게 의도적으로 현존하는 언어에 속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소음,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에는 결코 들어 보지 못한 소음을 발설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여전히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그리하여 그의 발화 행위(speech act)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sup>18)</sup>

위의 예는 “언어 법칙이나 관습이 지니는 의미 결정력”(“AT2” 60)을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18) Steven Knapp & Walter Benn Michaels, “Against Theory 2,” *Critical Inquiry* 14.1 (1987): 65. 이 논문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AT 2”로 밝히기로 함.

언어의 본질을 “관습”(convention)에서 찾고 있는 해체구성 비평 이론의 대부격인 데리다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sup>19)</sup> 냅과 마이클즈가 위의 예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결코 그 어떠한 습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의미 전달에 성공할 수 있다”(“AT2” 66)는 점이다. 즉, “의미에 근본이 되는 요소”는 “관습”이 아니라, 이미 「이론에 반대하여」 전편에서 주장한 대로, “의도”라는 점(“AT2” 67)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가 보여 주듯이 “소음”이 “발화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냅과 마이클즈의 주장대로 단순히 택시 승객이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일까? 단순히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언어에 속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소음”이 이른바 “기표”가 된 것일까? “의도”라는 명분 아래 냅과 마이클즈는 <바벨적 언어 상황>을 공공연히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냅과 마이클즈의 논리에 이와 같은 의문들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도”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냅과 마이클즈는 “발화 행위”에 작용하는 또하나 “의미에 근본이 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마리옹”의 예와 “걸닐목”의 예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마리옹’이라는 소리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드만의 주장이 반증해 주듯이, 루소 주위의 사람이나 『참회록』의 일반 독자들은 이른바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의미 부여가 가능한 “기표”로 여기거나, 또는 여기려는 유혹을 느낀다. 말하자면, 드만의 말대로 비록 루소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리옹”이라는 소리를 발설했다고 하더라도, 즉 루소의 “무의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의도적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다. 만일 별다른 의미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소리”를 사람들이 의도적 발언으로 이해했다면, 이는 명백히 루소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의식”이라는 <-의도>의 상태도 <+의도>와 마찬가지로 “의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오해>하게 되는가에 있다. 냅과 마이클즈가 제시한 “걸닐목”의 예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유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가정대로 걸닐목 앞에서 승객이 “의도적으로” 발설한 “전혀 엉뚱한 소음”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해석”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소리”를 “발화 행위” 또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기표”로 넘겨짚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다시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운전자가 그와 같이 <넘겨짚게> 되었는가이다. 이와 같은 의문은 발화 행위에 작용하는 또하나 “의미에 근본이 되는 요소,” 즉 <의도외적>(extra-intentional)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길이 없다. 이 요소를 우리는 편의상 발화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을 것이다.

19) 언어의 “관습성”에 관한 데리다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lyph* 창간호에 실린 데리다의 논문 “Signature Event Context,” 그 중에서도 특히 오스틴(J. L. Austin)에 대한 비판 부분(*Glyph* 1 186-193)을 참조할 것.

이른바 <맥락>이라는 변수로 인해 넵과 마이클즈의 주장과 달리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는 “실제로는” 분리될 수도 있다.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는 “소리”에 발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발화 행위로 넘겨짚을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 만의 논리는 그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일 수 있다. 아울러,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를 분리할 수 있는 한,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여전히 포기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넵과 마이클즈 자신의 <반이론>의 논리도 하나의 새로운 <이론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첼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론에 반대하여]의 중심 주제는 이 논문의 비판 대상 못지않게 ‘이론적’ 이고 ‘실용주의적’ 혹은 직관적이다.”<sup>20)</sup>

#### Ⅳ. 마무리: 미국 비평계의 미래

전통적인 문헌학적 또는 역사고증적 방법을 대신하여 형식주의적 문학 이해의 방법을 확립한 신비평은 흔히 미국 현대 비평의 출발로 이해된다. 바로 이 신비평의 형성 단계에도 핵심적 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다름아닌 “의도”의 개념이다. 일찌기 1946년 윌리엄 워셋트(William K. Wimsatt, Jr.)와 먼로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는 「의도의 오류(“The Intentional Fallacy”)에서 “작가의 의향이나 의도는 문학 작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하다”<sup>21)</sup>라고 선언함으로써, 신비평의 이론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작가의 의도가 배제된 텍스트 자체의 의미라는 신비평의 원칙은 오랜 동안 델보(L. S. Dembo)의 표현대로 “미국에서 학문적 비평의 알파와 오메가”<sup>22)</sup>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서 허쉬는 작가의 의도야말로 작품 이해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재연시켰던 것이다. 결국 신비평가들과 허쉬는 서로에 대해 극복의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가 모두 비평의 객관성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양자 모두 본질론자들로 규정될 수 있거니와, 불편의 객관적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해체구성 쪽에서 보면 한결같이 극복의 대상이 된다. 한편 넵과 마이클즈가 제시한 <반이론>의 논리는 본질론자들의 논리와 해체구성의 논리를 한꺼번에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니와, 이들의 논의가 지니는 의의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해체구성을 포함한 모든 비판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 Mitchell 8.

21) William K. Wimsatt, Jr. & Monroe C. Beardsley, “The Intentional Fallacy,” *Verbal Icon: Studies in the Meaning of Poetry* (Lexington: U of Kentucky P, 1954) 3.

22) L. S. Dembo, “Prefatory Note,” *Directions for Criticism* (Madison: U of Wisconsin P, 1977) vii.

사실 해체구성 이전의 모든 비판적 논리는 상대의 입장(position)이나 신념(belief)을 꺾어 넘어뜨리고 그 빈 자리에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그룹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자신의 옳음에 대한 주장과 자리를 함께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입장이나 신념도 항상 또하나의 새로운 입장이나 신념에 의해 마찬가지로의 비판 과정을 거쳐 대체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떠한 입장이나 신념도 자신의 궁극적인 옳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하나의 입장이 하나의 입장을 대체하고, 다시 새로운 입장이 기존의 입장을 대체하는 무한 퇴행(*regressus in infinitum*)의 상황이 비평계의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해체구성의 출현에 우리는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 자신의 입장이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서도, 또는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내세우지 않고서도, 기존의 비평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해체구성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체구성이 반(反)해체구성론자나 본질론자들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넓게 보면 <-입장> 또는 <-신념>도 하나의 입장 또는 신념일 수 있으며, 비본질론도 비본질론을 위장한 본질론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체구성은 또한 내부의 <적>을 갖고 있거니와, 해체구성은 여전히 또다른 해체 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해체구성될 수 있음을 부인하는 해체구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체구성이 아니다. 따라서 해체구성이 해체구성을 낳는 이른바 무한 퇴행의 상황이 여기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해체구성에 대한 해체구성은 엄밀하게 말해 해체구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해체구성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해체구성에 대한 해체구성은 애초에 해체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론 쪽에 대안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해체구성이 문제 삼는 본질론의 문제점은 본질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해체구성에 대한 본질론자들의 비판은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비판은 그만큼 논쟁력의 약화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해체구성에 대한 해체구성론자들의 비판이나 본질론자들의 비판은 나름의 한계를 지닌다. 즉, 이들에게 해체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평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해체구성은 비평 담론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귀착점인가?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기대하지 않던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론에 반대하여”라는 비판 전략에 의해 본질론과 해체구성을 동시에 극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본질론은 말할 것도 없이 해체구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체구성을 뛰어넘어서도 여전히 비평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모든 이론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넵과 마이클즈

의 논리에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결함이 이유가 되어, 또는 전혀 엉뚱한 문제가 이유가 되어, 넵과 마이클즈의 논의 역시 앞으로 무수한 논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내재적 붕괴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비평이 미국 비평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듯이, 또한 “통찰력” 뒤에 감추어진 “맹점”에도 불구하고 드 만의 이론이 최근의 미국 비평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듯이, 넵과 마이클즈의 반이론의 논리 또한 지나친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국 비평계에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영향력은, 신비평이나 해체구성의 경우와 달리, 새로운 비평학파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비평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론을 부정함은 새로운 비평 전략이나 방법론의 정립을 포기함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미국 비평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해답은 이론(theory)이란 “바깥쪽에서 실제(practice)를 지배하기 위해 실제의 바깥쪽에 서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주어지는 명칭(“AT” 742)이라는 넵과 마이클즈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에 반대하여, 또는 “이론”과 관계없이, “실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미국 비평계의 미래를 지배하는 하나의 조류가 될지도 모른다.

이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실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넵과 마이클즈의 주장이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신실용주의”(the New Pragmatism)로 규정될 수 있는 움직임이 미국 비평계에서 일벌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신실용주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넵과 마이클즈 이외에, 미첼의 지적대로 스탠리 휘쉬(Stanley Fish)나 “미국의 실용주의적 전통을 복귀시키려고 하고, 이를 유럽 철학 내의 반이론적인 경향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신실용주의의 확립에 일조했던”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우리는 이론화의 경향에 때때로 빠져든다는 이유로 휘쉬가 넵과 마이클즈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음(“AT” 737-41 참조)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로티가 “이론”이란 “철학의 한 종류”이며, “전통적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명명된 텍스트와 비철학적인 것으로 명명된 텍스트 [예를 들면, 문학 텍스트]를 함께 엮어 주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sup>24)</sup> 아래 넵과 마이클즈의 논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신실용주의는 결코 하나의 단일한 비평학파로 파악될 수 없다. 넵과 마이클즈는 자신들이 비록 실용주의자라 하더라도 로티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실용주의자는 아님을 밝히고 있음<sup>25)</sup>에서 일별할 수 있듯이, 신실용주의란 규범적 용어라기보다 느슨하게 “실제”를 중시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일종의 기술적(記述的) 용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실용주의적인 것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관념

23) Mitchell 1.

24) Richard Rorty, “Philosophy without Principles,” *Critical Inquiry* 11.3 (1985): 463.

25) Steven Knapp & Walter Benn Michaels, “A Reply to Richard Rorty: What Is Pragmatism?,” *Critical Inquiry* 11.3 (1985): 470-72 참조.



적 논의 그 자체가 반실용주의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실제”를 중시하는 가운데 미국 비평계는 <학파>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져 왔던 비평계의 파벌화를 지양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Critical Inquiry*의 편집장인 미첼이 “넵과 마이클즈의 「이론에 반대하여」는 *Critical Inquiry*의 핵심적 편집 원리, 즉 어딘엔가에서 자신이 ‘변증법적 다원론’이라고 명명한 개념을 시험하는 이상적 예가 된다”<sup>26)</sup>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비평계의 파벌화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끝으로 이 글의 첫부분에서 문제삼았던 드 만의 “과오”로 되돌아가 보기로 하자. 아마도 넵과 마이클즈가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드 만의 루소에 대한 이해가 다시금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루소는 『참회록』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털어 놓고 어떤 종류의 변명이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가 행한] 행위의 총체적인 우발성이 드러나면서 가장 효과적인 변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루소 자신이 아닌 드 만이 찾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 만이 범한 과오의 “총체적인 우발성이 드러나면서 가장 효과적인 변명”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드 만의 수많은 신문 기고문 중 반유태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지 두세 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그가 반유태적 성향의 글을 쓴 것은 우발적인 것, 드 만의 표현대로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드 만의 유태인에 대한 언급을 의미가 배제된 이른바 “순수 기표”라고 해야 할까? 아마도 드 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는지도 모른다. 또는 그와 같은 변명이 자기 기만이라는 또하나의 과오를 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리옹”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발화자 쪽이 아니더라도 청취자 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없는 소리인 동시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 소리라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드 만의 반유태적 발언에 그 어떤 다른 발언을 대체하더라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라는 투의 논리를 펼 수는 없다. 따라서 루소의 과오에 대해 최상의 변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드 만의 노력이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드 만의 과오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란 어렵다. 그의 과오만큼이나 그의 비평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그의 과오로 인해 그의 논리가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의 과오로 인해 그의 비평 논리 전체가 매도될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인간의 과오와 그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업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모든 문학도들이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인지도 모른다. 또는 그 딜레마가 문학 연구를 <문학 연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처와 영광, 자기 회한과 자기 기만, 이는 모두 하나일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인 것이다.

26) Mitchell 3.

**Deconstruction and the Trends and Prospects of Literary  
Criticism in America:  
Paul de Man and the New Pragmatism of Knapp and Michaels**

**Gyung-Ryul Jang**

In his essay, "Form and Intent in the American New Criticism," Paul de Man argues that the New Critics' rejection of "the principle of intentionality" has led their criticism to "a state of paralysis." They reject the authorial intention because it obstructs the critical objectivity, which they believe can be pursued only by the analysis of the language of a given text. De Man, however, argues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sign and meaning" makes it impossible for critics to attain such critical objectivity. For this reason, according to de Man, critics should get over the illusion of objectivity, admitting that "the exalted status [literature] claim [s] for its language [is] a myth." What de Man has in mind here is the strategy of deconstruction. That is, what the genuine critic should do is to locate the moment when a text violates the meaning it appears to set up objectively. The problem with de Man, however, is that it is he who rejects the very principle of intentionality. Note that, by attracting our attention to the meaning unintended by the author, but revealed through "the discrepancy between sign and meaning," he is indeed making the deconstruction a "new new criticism." We can detect the *blind* spot here, in spite of de Man's *insight* into the nature of language.

The problem of de Man's argument is highlighted in Steven Knapp and Walter Benn Michaels's essay, "Against Theory." In this essay, Knapp and Michaels show that de Man, as well as other theorists, "rest[s] on a single mistake, a mistake that is central to the notion of theory per se." In particular, Knapp and Michaels problematize the notion of intention and argue that inten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meaning "because meanings are always intentional." According to them, however, de Man subtracts intention while other theorists such as E. D. Hirsch, Jr. or P. D. Juhl adds it. Thus, they argue, "the whole enterprise of critical theory is misguided and should be abandoned." A close examination of Knapp and Michaels's argument against de Man, however, reveals that their argument is also "misguided" and that intention *can be* still separated from meaning.

For this reason, we might argue that theory itself, including de Man's, cannot be abandoned. Curiously enough, the central thesis of "Against Theory" is itself theoretical.

Knapp and Michaels's argument, however, deserves attention, in that they have introduced a new strategy by which we can overcome not only the limits of essentialism evident in the New Criticism and other critical arguments but also those of de Man's deconstructive critical thinking. Note, in this regard, that a kind of *regressus in infinitum* is inevitable for both, since essentialist argument always fosters another essentialist argument, and deconstruction always begets deconstruction. By adopting the strategy called *against theory*, they effectively enable critics to go beyond the *regressus in infinitum*. No doubt, Knapp and Michaels's argument has its own limits, as mentioned above. But, just as the New Criticism and de Man's deconstruction have exerted tremendous influence on the American critical scene with all their limitations, so their argument will exert influence on the future American criticism. Of course, it will not help set up a new critical *school* or *sect* that values a certain kind of *theory*. Rather, a tendency that centers on *practice* itself will be one of the main currents visible in the future American critical scene.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lready witnessed such a tendency. In addition to Knapp and Michaels, we may mention here Stanley Fish and Richard Rorty, to whom the term "New Pragmatism" is loosely applied. Led by these New Pragmatists, the American criticism will take the new road in which *practice* is valued against *theory*.